

# 인신매매범 2명 7년 선고

89. 7. 23

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)는 21일 부녀자 상습 인신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습부녀매매조직 두목 김봉수(22·도봉구 수유동 201·전과 7범)씨 등 2명에게 지금까지 부녀매매죄에 선고된 최고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인신매매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중대범죄행위”라며 “피고인들은 차량까지 동원,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부녀자 매매를 자행해 엄벌에 처

한다”고 판결이유를 밝혔다.

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용산구 이태원동 ‘25시’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김아무개(19·여)씨 등 2명을 “같이 춤추자”며 유인, 봉고차에 태워 여관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경기도 파주군 윤락가에 2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15명의 부녀자를 전국 지방 각도시 사창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 2월27일 구속기속된 뒤 부녀매매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었다.